

#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 돌입... 제3지대 열리나

창당준비위 발족 본격 절차  
"국힘 모든 정치자산 포기"  
총선 전 재결합 전부터 부정  
금태섭·양향자 등과 소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동시에 '개혁신당'을 가장으로 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창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며 "국민의힘에서 함께 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투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어 "호사자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신당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해 이제는 주삿바늘을 꽃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며 △교육개혁 △감군계획 △국민연금 등을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으로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과정은 일반 정

당의 창당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 등록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 대회 같은 경우 간소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개혁신당'은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 그러면서도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 제3지대 빅텐트를 펼칠 뜻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 의회망 대표 등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연대할 핵심 대상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꼽기도 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 국민의힘과의 재결합 가능성은 전무 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 개혁의 실증적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확 바뀔 것"이라며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으로 함께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 윤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 기재 김윤상·여가 신영숙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4개 부처 차관 등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후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으로, 현직 '부부 차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직 실장이 내부 승진했다.

국토부 제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송갑석 "민주 통합선대위 조기구성해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27일 "통합이 혁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들을 포함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혁신 요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 대표와 세 총리 모두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조기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통합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해 앞으로 남은 100여일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통합

선대위 안에서 당내 여러 시각과 입장이 자유롭게 소통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있는 형국"이라며 "통합과 함께 혁신 또한 총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여러 세력들의 시각과 입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는 통합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원칙과 상식'이든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 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한동훈, 오늘 상견례 '관심'

### 민주 "일정 조율 중"

전날 취임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간 회동이 추진 중이라는 질문에 "내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야는 새 당 대표, 원내대표가 취

임하면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갖는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대표의 본관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 출근길에 "예방해야 할 분들이 많다. 의장을 포함해서 관례에 따라 그분들 일정에 맞춰 제가 가서 인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한 분'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민

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외교안보 박선원·의료 강창희 '4·5호 인재' 영입

### "외교 안보·국민 건강이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씨(60)와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 강창희씨(59)를 인재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과거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거나 도전한 '정치 이력'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인재 발굴이나 신선함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박씨와 강씨를 각각 4·5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와 국민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인재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박씨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흥부전문의원 강씨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나주 출신인 박씨는 노무현 정부 청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개최하고 4호와 5호 인재로 박선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강창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을 영입했다.

뉴시스

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을 거쳐 주상해 대한민국 총영사, 국정원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기획조정실장·제1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재보궐선거 때 고향인 나주·화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강씨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흥부외과를 전공한 뒤 대한의사협회 의료

배상공제조합 이사장·상근부회장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을 지냈다.

강씨는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당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결정하겠다"고 했고, 강씨는 "강남 지역이 아무래도 돌봄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적합하기에 강남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